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총선의 시간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고 한쪽에서는 '불출마와 사퇴'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다. 장재원 불출마와 김기현 사퇴 그리고 이탄희·홍성국 불출마가 한쪽이라면 인재영입위원회와 인재위원회가 다른 한쪽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첫 총선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했다. 박지성·이영표·장미란 영입설도 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매주 새로운 인재를 발표하며 모두 40여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첫 총선 영입 인재는 기후환경 전문 여성 후보사다. 박정훈·임은정·류삼영 영입설도 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8632명을 접수받아 이중 1400여 명을 영입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총선을 앞둔 외부 수혈은 대한민국 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으로 외연 확장의 효과다. 새로운 사람 영입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상대의 강점을 약화시킨다. 15대 총선은 '역대 최고의 영입'으로 평가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은 민중당 출신 이재오·김문수·이우재·정태운을 영입한다. 운동권 출신과 함께 모래

업그레이드 된 인재영입이 필요하다

시계 검사 흥준표 그리고 총리시절 갈등관계였던 이회창까지 함께 한다. 승부사 YS의 진면목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출마하며 '민주 vs 반(反)민주' 구도를 희석시킨다. 결과는 신한국당 139석 원내 제1당. 특히 수도권 96석 중 54석을 얻는다. 한 자릿수 의석 확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선 선전이다.

199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인재 영입은 정계 은퇴 번복과 대권 4수를 넘어 '뉴 DJ'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인기가 높았던 소설가 김한길과 MBC 앵커 정동영 그리고 정세균과 추미애가 영입된다. 노태우의 대북정책 담당자였던 군 출신 임동원도 함께하며 균형을 맞춘다.

영입은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16대 총선에서는 '386 운동권 인사' 우상호·이인영·임종석이 함께 한다. 김윤환·이기택 의원의 공천 탈락과 남경필·오세훈·원희룡·정병국 그리고 17대 총선의 나경원·유승민·이해훈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쇠퇴의 인재 영입도 있다. 20대 총선의 표창원과 이철희, 성공한 CEO 김병관과 유명 여학원을 운영하는 박정 그리고 유리천장을 깬 양향자가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팽' 당한 조승천과 진영도 있다. 이들은 친노 친문 86그룹의 운동권 이미지를 약화시킨다. 당내 기득권 세력의 분식 이미지다. 물론 결과는 수도권과 PK 약진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123석, 원내 1당이였다.

총선의 인재 영입이 성공하려면 당의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키즈

와 문재인 키즈가 그렇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영입은 주목받지 못했는데 김부성 대표는 청와대와 친박계 주도의 공천에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총선 때 외부 인재 수혈은 '이벤트의 관심 끌기 영입'이라는 비판이 있다. 기득권 세력을 위한 액세서리의 소모품 정치라는 말이다.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단어가 된 '청년정치'가 대표적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과 불만의 대안으로 청년정치를 소비한 셈이다.

보완적 이해관계나 혁신 이미지를 위한 외부수혈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의 어젠다 중심 인재 영입이어야 한다. 시대정신의 실현이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개혁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차명서 LG트윈스 단장이 '첫 번째 우승은 팀 전력이고 두 번째 우승은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스트셀러 육아 필독서 저자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문화와 아이를 쉽게 키우는 육아문화 복원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언급은 울림이 남는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승정씨는 "인성과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량이 좋은 선수는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축구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재능을 뒷받침해줄 성실함과 겸손함을 갖추고 공공성이 성실과 겸손의 대상이다. 인재영입, 이젠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社說

불발된 공항 이전 대화... 무안군수가 답하라

그제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김 경주 전남지사의 무안 군민과의 대화는 우여곡절 끝에 반쪽 행사에 그쳤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기대했는데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안군수와 무안군 소속 도의원 및 군의원이 전부 참석하지 못했다.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범대위) 주민들은 "군공항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들어보내 주겠다"며 김 지사의 행사장 진입을 막는 바람에 1시간 20여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김산 무안군수는 범대위 주민들이 집무실을 막아서자 이에 행사장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군민과의 대화는 전남지사가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을 놓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따라서 이날 무안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는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무안군수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남지사와의 만남은 불발됐고 김 지사의 공항 이전 필요성만 공허하게 체육관을 울렸다. 김산 군수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범대위를 핑계로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지만 있었다면 범대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설혹 행사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나오지 않은 김 군수를 향해 무안군이 광주시와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무조건 안한다고 하면 무안군 잘못으로 비쳐진다면 공론의 장에 나와 상대방의 주장에 무엇이 잘못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들어 한번도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았다. 정말 대다수 무안 주민들이 반대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제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김산 군수가 전남도와 광주시에 답해야 한다.

쪽방촌 흑독한 겨울나기 꼼꼼한 지원 나서야

광주시 동구의 쪽방촌 주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꼴로 제대로 된 난방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난방비 부담을 우려해 강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는 대인동 175세대, 계림1동 112세대 등 총 287세대 쪽방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사한 '쪽방촌 실태조사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45.7%가 겨울철 난방을 하지 못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으며 난방 기구로는 68.8%가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시가스 이용자는 13.1%, 전기매널 10.0%, 기름보일러 3.8% 등의 순이었다.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23년째 달방 생활을 이어 온 A씨는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는 방갈방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A씨는 "비도 새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월 67만원 기초생활수급비만 받고 생활하려면 월 20만원 달방에서 사는 것 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환경의 불편한 점으로 32.5%가 식사 문제를 꼽았으며, 24.6%가 난방·누수·습기 문제라고 답했다. 이같은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주민 62.5%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했다.

사실, 쪽방촌 주민은 독거 노인 등 의지할 데가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주변에 돌봐줄 가족이 없다 보니 식사를 거르기 일쑤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나기를 하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식비 지원을 위한 쿠폰을 보급하거나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웃의 따뜻한 배려와 온정의 손길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몹시 춥고 눈발이 날리는 성탄절 새벽에 교인들은 조를 나누어 동리마다 새벽 송을 하게 되었다. 중학생이었던 나는 가장 먼 곳에 다녀와야 하는 조에 속하게 되었다. 그 추운 겨울날 새벽에 산 고개를 넘어 젖은 목장을 하는 집사님의 맥을 방문하였다. 집사님은 반갑게 우리 일행을 집으로 들여오라 청하셨다. 탁자에는 미리 준비해 둔 따뜻한 우유가 잔마다 가득 채워져 있었다. 미리 짜 놓은 것을 따뜻하게 끓여서 추운 날씨에 몸 녹이라고 준비한 것이었다. 설탕을 적당히 넣은 따뜻한 우유가 얼마나 맛나던지 달콤한 우유 맛에 별 생각 없이 두어 잔을 연속으로 마셔 버렸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다. 참고 가던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다급한 생각이 났다 뛰기 시작했다. 고개를 넘어 달리고 달리 교회 화장실에 도착하여 불을 보고 나니 그 추운 날씨에도 온 몸에 열과 땀이 솟아나고 있었다. 부끄럽지만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추억이다.

그때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를 얼마나 했던지,

'아기다리고기다리는' 성탄절

대강절이 시작되면 트리와 장식을 교회 안팎으로 꾸미고 교회학교 아이들은 성극, 암송, 성탄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성탄절 이브에는 교회마다 전야행사가 가장 화려한 문화 행사였다. 나는 유치부 때 외웠던 성탄절 성경말씀 구절을 지금까지 잘 외우고 있다. 그 중에 최고 인기 장르는 바로 연극이었다. 어릴 뿐 대사와 불품없는 의상이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기에 가장 인기 있고 재미도 있었다. '빈방 없어요'라는 연극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등장인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지만 아기예수 역할은 바뀌지 않았다. 그 역할은 매년 아기인형이 맡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성탄절의 기다림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었지 진정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구나 싶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기다리고기다리는'이라는 것은 한글의 띄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예로 잘 쓰는 문구이다. 띄어쓰기의 잘못은 읽는 이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전혀 다른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믿지도 않았다. 현재를 사는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대강절을 보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이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잘못을 반복할 뿐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메시아를 꿈꾸어야 하는지, 또한 그분이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를 심판할 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차별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당당히 서야 할 것이며 당연히 그러한 정의를 꿈꾸어야 한다. 힘과 권력에 취해 불법을 저지르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 코 스프레나 겸손한 사람 흉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가 어떤 세상을 이룰 것인가를 나타내는 구절이 나온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중략)"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들은 평화로운 동물의 왕국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잠깐 평화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처절한 경쟁과 이기적인 세상은 전쟁의 공포 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을 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을 우리도 기대하고 기다려야 '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이리라.

기 고



김재식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난 13일 광주 첨단 어린이교통공원 야외마당에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착공식이 열렸다.

지방 최초 순환선인 2호선 건설이 완료되면 오는 2026년 말이면 지하철을 타고 동구 산수동에서 서구 상무지구까지 출근이 가능해지고 2029년이면 광산구 수련지구에서 동구 동명동 아시아문화전당까지 공원을 보러 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광주도 폭우나 폭설 그 어떤 상황에도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이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정확한 시간에 안전하게 도심 웅만한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단계별로 추진 중인데,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17km 구간은 유촌동 차량기지에서 상무, 금호, 풍암지구, 조선대학교를 경유하고 중흥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다. 2019년 9월 착공해 현재 68%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은 중흥삼거리에서 용봉-일곡-본촌과 첨단·수완-운남-신가지구 등 북구, 광산구의 주요 관공서와 대학교, 주거지역을 거쳐 유촌동 차량기지까지 20km에 달한다. 모두 8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1층 대합실을 경유하여 지하 2층에서 탑승하는 구조인 1호선과 달리 경량 전철로 건설된다. 저상도 공법으로 지상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정거장에서 탑승이 가능토록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하였으며, 최첨단 안전자동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안전과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보급은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배출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등 인류를 위협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대비 9분의 1, 버스의 4분의 1 수준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광주에 2호선이 개통하게 되면 현재 1호선의 승승분담률이 3.6%에서 12.1%로 8.5% 증가하고 연간 20톤 이상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호선이 건설되면 역세권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 전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곧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내년이면 2단계 구간도 도로 굴착 등 공사가 본격개

에 오른다. 광주시에서는 2019년 9월부터 1단계 구간 공사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고 축적된 노하우를 적용하여 2단계 구간은 시민들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 전에 경찰청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여, 각 구간별로 차량 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세워 교통처리 대책을 충분히 마련 후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시행 전에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공사 내용과 시기, 우회도로에 대하여 교통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공사 중 발생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필자는 1996년 2월 녹동에서 상무 구간의 1호선 1단계 구간 착공부터 광주시 지하철 건설과 함께 해왔다. 2호선 2단계 착공을 맞게 돼 감회가 새롭다. 미래 세대에 "교통 지체 없이 차 없이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하철도 도심지 어디든 이동 가능할거야"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들께서도 2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소 교통불편을 겪더라도 깨끗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할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니만큼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호선 건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

無等鼓

한 편의 영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과 '하나회'가 민주화의 열망을 군항법로 짓밟고 권력을 총칼로 찬탈하는 과정을 그린 '서울의 봄'이다. 영화는 관객 700만 명을 넘어 1000만을 향해 질주하며 수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다. 5060은 빼앗긴 젊은 시절을 돌아보려 영화관을 찾고, MZ세대는 영화를 통해 비극의 현대사를 배운다.

서울의 봄은 결국 오지 않았다. 반란군의 승리에 관객들은 분노를 높이고 승화시켜 '심박수 헬린지'를 하며 즐기고 있다. 또한 관련 자료와 영상을 찾아보고 영화 속 인물과 실존 인물을 비교하며, 이들이 12·12 사태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공부하는 적극적인 관람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영화를 본 뒤에도 가슴이 아픈 이유는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이들의 만행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은 생각할수록 기막히지만 지금이라고 크게 탈라진 건 없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아직

도 여야 대결에 따른 '是非是非(시비시비)'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획기적인 과학적 진리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면 세상이 곧바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그가 죽은 뒤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44년이 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영화를 통해서나마 12·12 사태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영화는 반란군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단체사진을 찍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정통성 없는 권력은 6개월 뒤 '5·18 광주학살'을 자행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는데도 발표명령, 암매장 등 진실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 해 5월 광주에 온 공수부대원들은 영화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중요한 것은 진실을 증언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화 속 전두환의 말을 패러디 해본다. "침묵하면 반란군의 하수인, 증언하면 역사의 증인 아닙니까?" /유재관 편집담당자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